

## 1. 예수님의 하트 드웰러스(마음에 사는)인 저희는 누구일까요?

(유튜브 채널 모임 대한 설명)

클레어와 에스겔의 사명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 & 예수님과 신성하고 친밀한 삶.

사랑하는 하트드웰러스 여러분

저희는 예수님을 위해 살고 저희의 안식을 예수님의 마음에서 찾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편안한 영혼들의 공동체예요. 복음주의, 개신교, 비 종파, 가톨릭 및 정통파에 대한 30년 동안 저희들의 활발한 사역에서 저희를 함께 하나로 만드는 공통적인 가치는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영혼들에 대한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희는 종파/비종파의 벽에서 나와서 예수님의 불타는 사랑과 뜻이 있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 예수님과 저희를 갈라 놓았던 벽을 무너뜨렸어요.

예수님의 마음에 산다는 것은 저희의 불결함을 예수님의 불타는 사랑으로 깨끗하게 하고, 저희가 사랑의 열정을 태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다른 영혼들의 안정을 가져다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희가 할 수 있었던 제한적이고 자연적인 경계에서 벗어나는 것이예요.

저희의 목적과 열정은 지구에 예수님의 왕국이 올 수 있게 저희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예요. 특히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기에 세상의 타락으로 인하여 소외되고, 길을 잃고,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저희의 마음은 예수님의 연민과 함께 불타고 있어요.

저희는 예수님을 더 원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이 열정을 공유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이 저희들의 마음과 목적이에요. 저희 마음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생각은 저희가 하나님께 아름다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과 신성한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이예요. 저희의 과거의 죄들은 예수님의 피 아래에서 예수님의 자비의 바다에 영원히 묻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잘못된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들 중 몇몇은 어릴 때부터 '너희는 그것을 얻어야만 한다' 라는 사고방식에 빠져 있어요. 아름다움과 충만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는 누구든지 원하면 얻을 수 있는 공짜로 주어진 선물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저희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해요.

결과적으로 저희는 죄책감으로 인해 하나님을 위해 더 나아지고, 더 열심히 하고, 더 노력하는 매일 계속 같은 상태에 머물러 살면서 저희들의 과거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아요. 마침내는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저희 기독교인의 걸음에 '정착이라는 타협의 슬픈 상태에 이르게 되요.

이 내적인 체념에 더해져서 저희는 정의를 내리지 못한 공허함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미있는 바쁨'이라는 혼란으로 숨기는 경향이 있어요. 집회에 참석하고, 성경공부를 하고, 더 많은 주간 예배를 드리고, 기독교 방송, 최신 서적, 음악으로요.

이 모든 외부의 자료들로부터의 관심과 영감은 오직 한가지를 하기 위한 것이에요. 얼굴과 얼굴, 마음과 마음으로 예수님과 친밀하게 깊은 수준으로 서로 나누고 예수님의 지혜의 샘물을 깊이 들이마시고, 하나님의 품 안의 안전함 안에서 안식을 취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 아름다워보이는 것으로 재창조하는 하나님의 숨결속에서 숨을 쉬고, 공허하고 다친 영혼들을 치유하는 것이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영감을 얻으려는 '의미있는 바쁨' 으로의 분주함은 하나님의 임재에 저희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와 친밀함을 쌓을 수 있는 공간을 주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영감을 주는 기독교 음악과 찬양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은 오직 그 길의 일부로만 저희를 이끌어 줘요. 나머지는 깊고 다정한 성령님이 저희를 흠뻑 적셔주시고, 성령님의 속삭임이 저희의 영혼에 스며들어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끈을 잘라내는 곳으로 저희를 사랑의 끈으로 이끌어 주세요.

저희가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스며들고 성령님의 존재에 취해 저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곳으로요.

저희는 예수님의 본성, 예수님의 열망,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예수님의 신실함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물 위에 올라서거나 혹은 산에 "없어져라" 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여자를 아는 것은,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곳인 그녀와 친밀한 연합이라고 하였어요.

저희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몸과,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요. 그리고 저희의 영적 교감의 깊은 능력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시면 저희는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저희가 있게 되어서 예수님이 저희를 아시는 것처럼 저희도 예수님을 알게 되요.

이것은 신비롭고 아가(구약성경)서는 예수님을 저희 안에서 찾을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도 저희를 찾을 수 있는 기쁨을 묘사하는것에 대한 비유예요. 이것은 육체적 연합이 아니라,

육체는 오직 그림자로만 존재하고, 저희의 모든 실체는 예수님의 안에 있는 지극히 초월적인 영적 결합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저희의 육체가 저희의 실체이고 저희의 영혼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역원리를 경험해요. 하지만 저희는 영혼에서 완전한 의미를 찾아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아도 저희는 예수님께 주입되어지고 예수님도 저희들에게 주입되어져요.

저희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제자리를 돌고 있는 자신만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저희들을 구해주는 젖어드는 기도(Soaking Prayer, 단순히 나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해 드리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움직임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깊고 의미 있는 예수님과 일대일 교감을 방해하는 불안정한 자기 노력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요.

거하는 기도(Dwelling Prayer)는 젖어드는 기도에서 약간 변형되어진 것이에요. 저희의 마음의 눈을 열고, 예수님이 거하고 계시는 저희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천국으로 가는 출입구인 예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를 통하고 그의 안에서 모든 것들이 그 존재를 갖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하는 기도를 통하여 짧은 천국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저희는 편안해지고 조용해지며 저희의 영혼에 성령님의 부드러운 움직임을 완전히 받아들여요.

저희가 휴가를 가지거나 혹은 일상 업무에서 떨어진 시간에 종종 저희는 수영을 하고 태양의 빛에 몸을 흡수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해요. 스트레스 받은 날에 저희는 욕조에 몸을 담그는 것을 좋아해요. 저희는 어떤 물건에 붙어있는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싶을 때는 물에다 담궈요.

거하는 기도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지게 해요. 세상, 미디어, 뉴스의 오염, 두려움은 저희들의 마음에 달라붙어 저희들의 생각의 물을 흐리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에 젖는 것은 저희들의 영혼의 긴장과 불필요한 걱정들을 모두 씻어내고 저희에게 반짝이고 깨끗하고 맑은 생각만을 남겨줘요.

스트레스가 많았던 하루를 보낸 후 뜨거운 물로 샤워하여 온 몸에 긴장을 풀고 그 날의 긴장을 내려놓는 것만큼 상쾌하고 깨끗해지는 것은 없어요.. 또는 만약 여러분이 욕조를 가질 만큼 운이 좋아 그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저희들의 몸에 억눌려있던 긴장이 완전히 풀려요. 마찬가지로 햇빛에 누워서 빛에 몸을 쬐이는 것도 저희를 휴식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쬐는 것도 똑같아요. 저희는 저희의 자기노력과 끊임없는 간구과 걱정을 내려놓게 되고, 심지어 저희의 생각이 예수님에 대한 찬양으로 채워져요. "나는 예수님의 임재 안에 있어.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해야해."

만약 지속적인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 안에 있지 않다면, 이것을 위한 정말로 중요한 시간이 있어요. 지구의 휴식을 위한 계절이 있는 것처럼 영혼의 휴식을 위한 계절이요. 여름동안 자라나기 위한 저희들의 나무 뿌리가 그 노력으로부터 진정하게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요. 봄의 무성한 새로운 성장을 준비하기 위한 깊고 깊은 휴식시간이에요.

이곳에서 예수님은 자주 드러내고, 지시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가져오시고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많은 일들이 있는 삶에 대한 열정을 새롭게 하세요. 이곳에서부터 창조성이 흐르고, 사랑이 흐르고, 용기가 흐르고, 그래서 그 잔이 가득 차고 넘쳐서 예수님께 목마르고 굶주린 다른 영혼들에게 부을 수 있어요

이곳에서 저희는 예수님과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을 내려 놓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수록 저희는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어 저희를 차지하고 있던 세상에 대한 관심과 의제가 텅 비고 의미 없는 것이 되어져요.

이곳에서 저희는 자기의지와 자기노력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과 저희를 통한 예수님의 일들을 기쁘게 그리고 기꺼이 받아들여요. 저희가 포도나무에 머무르고 있지 않는다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거하는 기도와 포도나무에 머무르는 것은 같은 의미를 가져요.

저희가 이 기도를 저희들의 삶에서 습관화시킨다면 속임수들, 저희가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저희를 만드신 이유, 저희가 가지고 있지만 발견하지 못한 선물들과 재능들에 대한 속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에요. 저희는 저희 자신이 얼룩과 주름과 흠이 없는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저희 자신이 완전한 새로운 빛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을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완성하신 예수님의 걸작으로 인하여 가족들로부터, 선생님들과 친구들로부터, 그리고 저희 자신의 깊은 자존감 부족으로부터 저희의 삶을 통해 축적되었던 저주의 말들에서 치유되어 질거예요.

이러한 종류의 기도로 정말 많은 것들이 성취되었고, 그것을 모두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저희 그냥 예수님은 신성한 예술가이고 저희들 각자는 예수님의 걸작이라고해요. 예수님은 저희 안에 거룩함을 충충이 창조하셨고, 예수님과 저희의 친밀한 관계로 저희는 승리를 위해 악을 포기하는 것이 훨씬 쉬워졌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진정으로 포도나무에 접붙여있어서, 달콤하게 익은 열매의 수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예수님의 영양분이 저희를 통해서 흐르기 때문이에요.

저희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에요. 하나의 머리 아래 천국이 하나인 것처럼요. 우리 주 예수님이요.

저희가 주님의 마음 안에서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의 대의로 하나가 될 때, 저희는 저희의 교단과 교리의 의제들을 모두 내려놓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하나의 목적으로 연합한 유능한 일손이 되어 영혼들의 구원하는 주님의 의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부분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배우자 관계로서 신성한 교감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에요. 저희는 이것들을 성령님과 저희의 신실한 기도 전사들에게 받은 힘으로 저희의 가르침과 기도 그리고 음악을 통해서 해요.

저희의 목표는 영혼들에게 음악과 가르침을 계속 공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과 함께 의미 있는 방식으로 영구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어 예수님께 매일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을 돕는 것이고, 그들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가 반영된 것일뿐인 인간의 지혜를 매우 조금만 필요하게 하는 것이에요. 즉, 여러분의 천국의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진정으로 연결되어서 예수님께 직접 양육 받고 가르침을 받는 위치에 있게 하는 것이에요.

저희는 성경공부, 집회, 책이나 음악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매우 영감을 주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그것들은 여러분의 영혼에게 줄 수 있는 것에 제한이 있지만 예수님의 임재는 그렇지 않아요. 매일 예수님께 공급받는 만나, 예수님이 안아 주시는 안전함, 찬양, 그리고 열렬한 갈망의 한숨으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저희들을 절망적인 인류의 바다 소용돌이 가운데의 단단한 돌로 만들어 주실 것이에요.

오늘날 세상은 경제적 도덕적 쇠퇴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두려움과 불안이 있어요. 저희는 이것들이 저희의 마음을 세상의 것들에서 멀어지게 하고 천국의 것들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고 보고 있어요. 근 10년동안 세상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설명하신 시대와 계속해서 닮아가고 있어요. 저희 인간의 본성은 불안정하고 두려워지는 경향이 생기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과, 저희를 둘러싼 모든 상황들을 무시하고 저희에게 필요할때 기적적인 돌파구를 가져다주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평화에 비교하여 세상의 것들이 하찮아 보이는 하나님과의 위대한 친밀한 관계로 저희를 인도하기 위해 세상을 휩쓸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움직임이 있어요.

저희는 예수님께서 지나갈 것들에 대한 애착에서 저희가 벗어나 예수님의 영원의 의제와 영혼들의 구원에 대한 긴급함에 집중하도록 하게 하셔서 저희를 이 마지막 때와 수확을 위해

준비시키고 있다고 믿어요. 세상의 여건들이 악화되면서 영혼들은 위안과 안전을 찾고 있으며, 때로는 최악의 장소들에서 '자신'이라는 외적인 모습으로 위장하여 평화를 만들어요.

사람들은 실질적인 위안을 가져다줄 진정한 해답을 찾고 있고, 만약 세상이 혼란에 빠져 있을 때 기독교 공동체의 행동에서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에요.

저희가 예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세상을 완전히 뒤덮은 것들에 너무 빠져있고,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어디에서 잘지를 걱정하는 것으로 가득차 있다면 저희는 그들에게 그 위안을 가져올 수 없어요.

이러한 모든 강렬한 열정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나가게 될 모든 것들과 예수님의 왕국에 속하지 않은 것들이 저희들이 밤낮으로 하는 걱정이 아니게 될 때까지 저희 자신을 예수님의 마음에 담겨야 해요. 이곳에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거하는 것이고, 하트드웰러스가 되는 것이에요. 저희 모두가 이 거룩한 곳에서 살고 행동하며 서로에게 위안과 영감을 주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마음으로부터,  
클레어 & 에스겔